



# 남도의 소리 뮤지컬로... 창극으로...



## 전남도립국악단 올 프로그램 확정... 기존 작품 레퍼토리화

### 다문화가정 그린 '내사랑 남도'·판소리 5바탕 '토요무대'에

지난 2008년 김만석 상임지휘자 취임 후 전남도립국악단은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남도 정통 국악의 맥을 잇는 한편, 국악 뮤지컬 등의 작업을 통해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국악의 현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전남도립국악단의 2010년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해다. '토요공연'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하는 한편 기존의 작품들은 레퍼토리화시켜 남도 대표 '문화상품'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국악 뮤지컬 '내사랑 남도'다. 전남은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내사랑 남도'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이주 여성들이 남도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다.

지난해 선보였던 여름방학 맞이 특별 기획 공연 '무럭이네 가족 귀신 소동'은 올해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인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작품은 새로운 각색을 통해 '무럭이네 가족소동 2'로 관객들을 만난다.

지금까지 260여차례 공연을 진행하며 광주·전남 지역 뿐 아니라 남도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토요공연'은 한국의 대표 국악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국악 레퍼토리로 꾸며지는 종합선물세트인 '토요공연'은 올해 소리의 분향 남도의 전통을 잇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흥보가', '수궁가' 등 판소리 5바탕 가운데 2~3개 작품을 선정, 연속극처럼 매주 릴레이식으로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도창, 입체창, 토막 창극 등 다양한 형태로 관객들을 만나며 연말에는 완판 창극으로 선보인다.

지난 2일 '새해맞이 흥겨운 가무와 큰잔치'로 문을 연 '2010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은 현재 3월 프로그램까지 확정된 상태다.

또 전남 지역의 대표 축제인 명랑대첩 기간에는 성용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 뮤지컬 '적에게 알리지 마라'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지난 2008~2009년 무대에 올렸던 '명랑의 북소리'를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그밖에 연말 공연으로 진행했던 '예종정감' 역시 두번째 시리즈를 준비중이며 올 3월에는 '예종정감'의 동부권 지역 앙코르 순회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3월부터는 국악 감수 프로그램인 '우리 가락 우리 춤' 강좌도 운영한다. 모집 분야는 민요, 장고, 무용, 대금, 단조 등이며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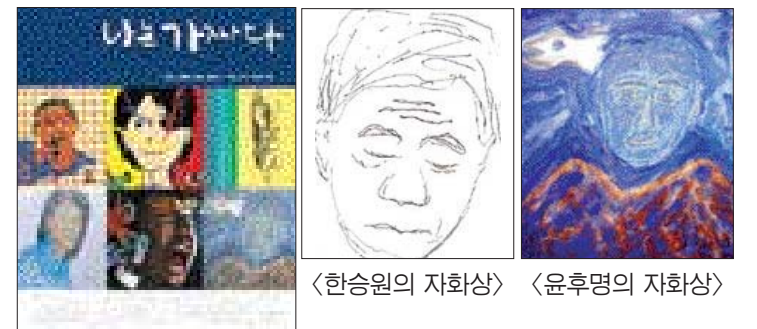
지난 1986년 창단된 전남도립국악단은 현재 어린이국악단을 포함, 창악·기악·무용부 14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만석 상임지휘자는 "기존 작품들을 보완, 수정해 레퍼토리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국악뮤지컬 등 새로운 창작품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37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인들이 그린 자화상, 어떤 모습일까

모음집 '나는 가짜다' 출간

한승원 등 42명 작가 수록



시인과 소설가들이 그림과 글로 자신들의 내밀한 속살을 내보였다.

'작가가 그린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나는 가짜다'에는 42명의 작가가 그린 자화상과 '나'에 대해 쓴 글이 함께 수록됐다. 지난해 해럴드경제에서 기획 연재한 '작가가 그린 자화상'을 엮은 것.

상당한 수준의 그림 솜씨를 갖고 있어 전시회도 여러 차례 연 소설가 윤후명씨는 두 봉우리 위에 자신의 얼굴과 새가 있는 그림을 그렸다.

소설가 마광수씨는 "현재의 내 모습은 그동안의 품과 때문인지 후지기 그지없다"며 "다시 태어난다면 '아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커다란 눈과 긴 손톱을 가진 여자의 모습을 그렸다.

소설가 한승원씨는 "당신의 자화상을 그려주세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주문이다"며 "내 얼굴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까다로운 관념으로 그 관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나는 그 하부구조를 만들어 나에게 읽히곤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형상을 '주름살, 그것은 이마에 슬픈 번뇌의 여울물로 가로질러 흐른다', '넓은 눈썹 발', '바다 쪽으로 열린 소라고동 겹겹 귀바퀴', '퐁퐁처럼 통통한 코' 등 세세하게 나열 설명했다.

이밖에 이순원, 박범선, 권지애, 김종광, 윤이형, 김경주 등 중견부터 신진에 이르는 다양한 작가들이 개성 넘치는 자화상으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내보였다.

평론가 강유정씨는 작가의 자화상을 '자멸과 자흥의 스펙트럼'으로 읽어내며 '한국문학의 사생활'이라 이름짓는다.

그는 "독자는 탐정이 되어 작가가 넘어놓은 빨래 속에서 작가의 진짜 삶과 허구적 진실의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도 진실과 허구를 가장한 진실 속에 작가의 진짜 초상화가 있다"고 말한다. <해럴드미디어> 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자태 드러낸 5세기 백제 금동관

2006년 고흥서 발굴...중간 보존처리



지난 2006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에 있는 안동고분에서 발굴된 5세기 초반 무렵의 백제시대 금동관(金銅冠帽·사진·이하 금동관)가 원래 상태에 가까운 자태를 드러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수습 당시 금동관에 뒤엉킨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중간 보존처리 성과를 19일 공개했다.

보존처리 결과 긴 대롱에 붙은 꽃봉오리 모양 장식물이 금동관 상단부 중앙에 꽃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식물은 금동관 발견 당시에는 본체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 보존처리 과정에서 그것이 꽃힌 자리가 발견됨으로써 원래 위치를 찾은 것이다.

백제 영역이나 백제의 영향이 짙은 옛 가야, 일본열도에서 발견되는 여타의 백제계 금동관은 이 장식물이 대부분 관 뒤쪽에 달려 있다.

안동고분 발굴단장이었던 전남 대학박물관 임영진 교수는 "보존처리 작업은 90% 가량 진행됐다"면서 "이 금동관은 5세기까지 고흥 지역에 독자적인 세력을 갖춘 집단이 남아 있었는지 등 고대사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다"고 설명했다.

<광복기자 krah@kwangju.co.kr

## 5·18 30돌 기념음악회 함께 할 시민 합창단 모집

**광주시향 내달3일까지**

5·18 30주년 기념음악회를 준비중인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무대에 함께 할 시민 합창단을 모집한다.

광주시향은 오는 5월 17일과 18일 두 차례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100여명의 교향악단 뿐 아니라 400여명의 시민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서는 의미있는 무대다.

시민합창단에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디션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오디션 과정은 '부활'의 2악장 합창부분(우리말 번역)으로 악보는 시향 카페(http://cafe.daum.net/gjsym.orch)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오디션 없이 서류 심사도 출연자를 선정한다.

한편 광주시향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 성악가를 대상으로 솔리스트도 모집한다.

파트는 메조소프라노로, 선발된 성악가는 지난해 열린 오디션에서 선정된 소프라노 오송하씨와 함께 무대에 설 예정이다.

접수마감은 오는 2월 3일까지며 오디션은 오는 2월 6일 광주시향 연습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표문화도시추진단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체험' 교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초등 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체험' 교실을 개회한다.

박경철(조선대 애니메이션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서는 만화창작교실은 만화 속 표현 기법 및 발상법, 스토리 구성 등의 강의와 함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원고로 만화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배우게 된다.

애니메이션 창작교실은 애니메이션 원리와 기법을 배우고 다양한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해 보

는 프로그램이다. 지도는 조선대 권동현(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가 맡는다.

강의는 오는 25일~2월 6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열린다. 접수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며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230-01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메가박스

1관	용서는 없다(18세)	최고급관
2관	용서는 없다(18세)	
3관	설복롬즈(12세)	
4관	웨딩드레스(12세)/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세)	
5관	전우치(12세)	
6관	전우치(12세)	
7관	아스트로보이-아름의 귀환(전제)	
8관	더로드(15세)/주유소습격사건2(15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12세)	
10관	아바타(12세)	

• 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권결제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가 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면국사거리 ☎1544-0600

### 콜롬버스시네마

1관	웨딩드레스(전제)
2관	설복롬즈(12세)
3관	엘빈과 슈퍼밴드2(전제)/전우치(12세)
4관	전우치(12세)
5관	아스트로보이-아름의 귀환(전제)
6관	더로드(15세)
7관	용서는 없다(18세)
8관	아바타(12세)/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12세)
10관	아바타(12세)

힐트시광 영화시영 • 메트:www.joycnc.com/ 1588-7941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메트로점(무역화관옆편)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 하미시네마

1관	아스트로보이-아름의귀환(전제)
2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세)
3관	더로드(15세)/설복롬즈(12세)
4관	파라노말 액티비티(12세)
5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세)
6관	웨딩드레스(전제)
7관	아바타(12세)
8관	아바타(12세)
9관	전우치(12세)
10관	용서는 없다(18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통신사 & OK 캐쉬백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6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60 • 하이 담주점

전세계를 사로잡은 인류 마지막 사생활!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 씨너스전대

1관	아바타(12세)
2관	파라노말 액티비티(12세)
3관	용서는 없다(18세)
4관	웨딩드레스(전제)
5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세)
6관	설복롬즈(12세)/주유소습격사건2(15세)
7관	전우치(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독자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 제일시네마

1관	아바타(12세)
2관	아바타(12세)
3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12세)
4관	용서는 없다(18세)
5관	설복롬즈(12세)/주유소습격사건2(15세)
6관	엘빈과 슈퍼밴드2(전제)
7관	용서는 없다(18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소 옆 호반타워주차장 -R, 입장권 구매 고려에 한함)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1번 or 2번)→0번